

#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 종교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려면 자기 나라가 있어야 한다

주제34(1945)년 10월 27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그리스도교교사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청사 집무실로 부르시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목사와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선생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시며 친히 자리를 권하시었다.

그리시고는 복잡한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었다.

당시 일본놈들이 쫓겨가고 해방은 되었으나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해방자》의 칼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친일, 친미,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을 끌어 모아 식민지배체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한편 북조선에 있는 반동들 을 부추겨 빈번히 소모를 일으키거나 류연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소란케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방해하고 있었다.

한편 어중이떠중이들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책동에 발맞추어 저마다 《애국자》, 《지도자》의 칼을 쓰고 지방정권기관안에 기여 들어 인민주권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인민대중을 정권기관으로부터 리탈시키며 낡은 제도를 되살리려고 갖은 음모를 다하고 있었다.

당시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앉아 있던 자도 그런 인물들중의 하나였다. 이자는 해방전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한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일제의 《내선일체》, 《동조동공》을 제창하고 《학도 지원병》제를 지지하여 열심히 하고 갈도 써낸 친일분자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이러한 실태를 알게 된 목사는 생각이 깊

### 민족교육사업을 생명의선으로 내세워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들을 탄압할것이라고 생각 하고있습니다.》

목사가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구속 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차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립장은 앞으로는 연합이 없을것이라고 다시금 해설해주시었다.

선생도 체험하였지만 식민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은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후 목사는 종교인들속에 종교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널리 해설 선언하여 그들이 애국의 길을 견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기자 김영진

## 이역땅에서도 어머니조국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국멀리 이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어머니조국이다. 그들은 기쁨 떠나 힘겨울 때나 언제나 조국을 그려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시련과 난관도 이겨나가고있다.

### 자랑스러운 역사를 깊이 새기며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안고

충현 도교전선종교학교는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종교교육의 만아들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학교졸업생들의 대다수가 충현의 각종 조직들은 물론 교육, 언론, 문화예술, 경제와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애국위업의 역센 기둥이 되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학교의 역사를 깊이 새기며 재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하늘같은 은덕을 칭송하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우라》와 1970년대 초 조국방문의 날 이 학교 학생들이 격정속에 지은 《조국을 떠나며 부르는 노래》 그리고 지난해 학교창립 75돐을 맞으며 새로 창작한 《민족교육의 만이》이다.

이 노래들을 부를 때마다 학생들은 선대들이 지켜온 우리 학교, 우리 조직을 지키고 사투주의 조직을 만들어갈 맹세의 웨침도 힘차게 더닌다.

《애국의 대들보가 되어 대를 이어 받아안은 그 사랑, 그 은혜가 거이 보답하겠습니다.》

재일동포사회가 사랑하는 이렇듯 화가 박정문동포가 공화국 인민예술가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었다.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운 그는 지난 수십년간 어머니조국을 그리며 애국의 정을 쉬임없이 이어가는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생활을 담은 《나의 조국》, 《신념》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 여러 작품은 국보적인 미술작품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 민제의 불행이건 민족의 패망하든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이 출현한 때로부터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은 《보안법》이 동서고금에 없는 사상최악의 파쇼악법, 회색의 인권말살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온 나날이기도 하다.

해방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압과 민족분열, 북침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남조선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은 매일과 같이 계속되었다.

이에 당황망조한 분렬주의세력이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탄압하고 식민주파쇼통치와 민족분열을 지속시키기 위해 고안해낸것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본판 《보안법》이었다.

《보안법》은 선진사회의 연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용당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를 물론 인륜도덕과 인간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말살해

### 친일패국노예에 대한 응당한 탄죄

최근 남조선 각계층에서 윤석열여도의 대일굴종행위를 단죄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반일단체들과 야당들은 기자회견과 토크쇼 등에서 윤석열여도, 도가 동아시아행각기간 진행한 일분사상과의 회담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앞서진척했었던 윤석열여도는 해외행각기간 일본정들과 회담을 진행한데 대해 《강력한 협력체제의 마련》이니, 《단호한 대응과 굳건한 공조》이니 하면서 자화자찬 하였다.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협력》이니, 《공조》니 하는것들을 구걸하기 위해 역적패당이 십나라장들에

오늘 바람채찬 이역땅에서도 민족적연애와 긍지를 안고역세게 자라나는 재일동포학생들의 자랑찬 모습을 볼 때면 충현의 민족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애국 사상과 배려를 다 들려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는 충현인들과 재일동포들이다.

주제83(1994)년 10월 6일.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충현교육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일군들에게 오늘 충현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애국위업의 불꽃을 지키고 민족교육사업의 충현을 이어 계승발전시키시다가 할 영예를

도 중대한 과업을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제혁명위업에 충실한 애국운동으로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려면 자라나는 세대들을 키우는 민주주의민족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은 애국위업을 이어나갈 총련일군들과 동포중추핵심을 키워내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총련의 존망과 애국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기라라는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었다.

총련의 민족교육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배워주는 사업으로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보시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교육관이였다.

사실 민족교육을 떠나서는 세세대 동포들을 애국인으로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 이어가는 문제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동포들의 민족성을 지키고 총련조직을 튼튼히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것이였다.

동포중추를 묶어세우고 애국운동을 벌려나가는 데서 민족교육사업이 노는 역할을 매우 중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이미전에 도 총련일군들과 담합하시면서 자신께서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생명선이라고 말할적이 있는데 거기에 는 민족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애국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동포중추를 묶어세우는 가장 위대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사실 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직후의 격동적인 시기에 이역땅에서 자녀들에게 우

리 말과 글을 배워주려는 동포들의 투쟁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출발점으로 되었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싸우는 피어린 과정에 동포들의 단합이 더욱 강화되어왔다.

하기에 자녀교육은 여전히 동포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으며 조선학교의 학부형들이 총련의 가장 믿음직한 애국적력량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적문제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총련의 민족교육에서는 민족자주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학생들을 돈이나 개인의 학력보다도 자기 수평과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운명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결함시킬줄 아는 참된 조선사람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재일조선학생들이 학교기간에 주체의 수령관, 민족관을 튼튼히 세우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간직한 주체형의 애국인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원대한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총련조직들은 민족교육사업을 조직진전성과 애국활동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교육일군대렬을 잘 꾸리며 각급 학교들의 교수교양과 과외교양사업, 소년단 및 조정사업, 학교운영사업, 학생대렬을 늘이는 사업에 전기관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일찌기 민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근리를 교현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1985년부터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당시)에 3년제 사범과를 내고 거기에 전망성있는 남학생들을 입학시켜 무료교육을 주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높은 공지와 자부심을 지닌 총련교육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되게 하시려고 어려모로 마음쓰시면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도 세워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을 때에는 일본에 있는 유치반어린이로부터 초급학교 학생에 이르는 동포자녀들에게 다 차례지도록 수만부리에 달하는 재배산삼도 보내주도록 하시고 또 언제든지 가는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재일조선학생들을 위해 특별열차를 따로 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재일조선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았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아버지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처음으로 진행된 새해설악이공연때에는 설악이공연으로 조국에 와있는 총련학생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목관에서 연회를 잘 차려주고 그이를 돌아가서 총련의 조직강화와 애국사업에 일생을 바쳐 일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도록 하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마련되고 다져진 애국의 대가문턱이 이어지고 있자니 오늘날도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총련의 부흥발전과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생명의선으로 내세워주시어

####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총련의 민족교육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배워주는 사업으로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보시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교육관이였다.

사실 민족교육을 떠나서는 세세대 동포들을 애국인으로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 이어가는 문제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동포들의 민족성을 지키고 총련조직을 튼튼히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것이였다.

동포중추를 묶어세우고 애국운동을 벌려나가는 데서 민족교육사업이 노는 역할을 매우 중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이미전에 도 총련일군들과 담합하시면서 자신께서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생명선이라고 말할적이 있는데 거기에 는 민족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애국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동포중추를 묶어세우는 가장 위대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사실 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직후의 격동적인 시기에 이역땅에서 자녀들에게 우



### 예속과 굴종, 몰락의 자취를 더듬어

####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리금수강산에서 조선민족은 단일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왔다.

반세기에 가까운 일제의 야만적식민지통치도 빼앗긴 강토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으려는 조선인민의 불같은 민족적지향을 꺾을수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과 더불어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에서 자주적인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전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그러나 민족분열과 국도량단의 비극을 산생시킨 미국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만은 절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 아느냐와 같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야망은 1945년 8월 9일 일제를 격멸 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중시로 산산이 부서질 위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침략의 눈독을 들이던 조선을 타고앉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질수 있는 정세가 조성된 적에도 당황망조한 미국은 교활하게 조선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참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이어나보려고 하였다.

그러하여 미국대통령 트루먼의 직접적지시에 따라 미국

가 개입하는 뒤집은 짓고 피해자는 머리를 굴서거리러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일본군주노예문제나 조선인 강제징용피해자문제 등의 과거사문제는 철저히 우리 민사측에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위에 다른 해결책이란 있을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된다.

특대형전쟁범죄, 반인륜적죄악에는 시효가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은 그 무슨 《미제지향》, 《관계개선》을 구걸하면서 친년속적의 피비린 대타격을 더어버려주고 어리석게 책동하여왔다. 박근혜여도가 불과 10억부,

그것도 일본당국의 배상이 아닌 민간단체의 모금에 의한 《배상금》을 대가로 일본 군선노예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인것으로 무마시키려 한것은 그 대표적실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한발 더 나아가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저들이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등 십나라장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뜨고 불수 없는 갖은 추태를 부리고있다. 더우기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복원하기로 하는 등 공화국을 해키기 위해 민족의 친년속적과 손을 잡고있다.

그야말로 친일사대패국형의 극치이고 십나라장들의 노복임을 자인하는 수취리운 행위이며 극악한 대결광, 전쟁광의 추악한 망동이 아

리 경철

대하여 명령하였으 1945년 9월 2일에는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주권의 결속,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없이 인명을 잃게 되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화되어 재건이 지체될 것인. 현재의 환경은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장래의 조선을 위하여서는 평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으니 국내에 동원인 발생할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음.》이라고 밝힌 포고를 비행기를 동원하여 서울에 뿌렸다.

그리고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침략의 더러운 군화발을 들어놓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남조선은 공화국과는 판이한 길을 걷게 되었으며 새로운 예속과 몰락의 운명을 감수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혜성